



광주시립사전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김홍빈 산악사진전 '산 넘어 삶' 전에서 포즈를 취한 장애인 산악인 김홍빈.

“꿈·희망·열정...쉽지 않은 여정 보여주고 싶었죠”

김홍빈 산악 사진전 '산 넘어 삶' 10월 25일까지 시립사전전시관 등반사진·등정기·장비 등도 전시 손가락 잃고 8천m급 13좌 등정

막 인터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 몇 명이 수줍게 다가와 조심스레 사인을 청했다. 그는 흔쾌히 웃으며 입으로 싸인펜 뚜껑을 열고 사인을 했다. '꿈과 희망, 열정'이라는 글귀와 함께 그의 이름이 담겼다. 김홍빈.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는 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인 산악인이다. 그는 "스스로 희망을 꿈꾸고,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인할 때 쓰는 글귀라고 말했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이 김홍빈 산악 사진전 '산 넘어 삶'을 오는 10월25일까지 시립사전전시관에서 열고 있다. 김홍빈은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등 7대륙 최고봉과 파키스탄 낭가파르бат 등 8000m 13좌 완등 기록을 갖고 있다. 8000m급의 마지막 하나인 파키스탄 브로드피크를 올해 등정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잠시 숨 고르기 중이다.

전시장에 펼쳐지는 건 감동의 휴먼 드라마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의 삶'을 오롯이 만날 수 있다. 전시는 등반 관련 사진 120여점을 포함한 산악 사진과 등반기, 등산 장비 등 아카이빙 자료로 구성됐다.

이번 전시는 그가 올랐던 내팔 로체 등 거봉의 아우라를 보여주는 '산 넘어 산', 불의의 사고를 겪었지만 이를 딛고 다시 산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담긴 '산 사랑', 대자연과 등반의 여정을 담은 '운명을 껴안다', 장애인 스키 선수 등 등반 이외의 활동을 담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산' 등으로 꾸며져 있다.

"저의 등반 기록을 사진이나 전시로 한 번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은 늘 했죠. 쉽지 않은 여정이었으니까요. 어렵고 험난했고, 때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저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큰 전시를 열게 돼 행복합니다." 전시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진들은 그와 동반대원, 셰르파 등이 찍은 사진이다. 구름이 잔뜩 낀 K2 정상, 거대한 형상으로 모습을 드러낸 에베레스트 남봉, 내팔의 칸첸중가 등 히말라야 높은 봉우리들의 눈과 빙하, 설원으로 가득한 풍경은 압도감을 준다. 무엇보다 그 거대한 속에서 묵묵히 산을 오르는 김홍빈을 비롯해 원정대원들의 모습은 감동을 전한다. 깊이를 알 수 없는 크레바스,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눈 속을 뚫고 끝없이 오르는 인간 승리의 현장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시된 사진들은 전문 사진작가들의 작품처럼 고품질의 사진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담지 못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관람객들이 가장 몰려드는 공간은 아무래도 '사고'와 관련된 사진과 글이 전시된 장소다. 고흥 출신으로 대학시절부터 산악 유망주로 꼽혔던 그는 28세에 홀로 도전한 북미 매킨리(6194m)에서 사고를 당하고 열 손가락을 절단하게 된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는 사진 속 그의 모습은 웬지 아련하고, 결국은 산으로 돌아와 봉대 감은 손으로 암벽 등반을 하는 모습 등은 감동을 전한다.

그는 1997년 유럽 최고봉인 엘브루즈(5642m)를 시작으로 7대륙 최고봉과 8000m급 14좌 도전이라는 '꿈'을 향한 첫발을 내딛었고 23년간 많은 선후배, 가

족과도 같은 셰르파들의 도움으로 마지막 한 발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고를 당한 후 기어갈수만 있더라도 내 힘으로 산을 오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삶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주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에 오르는 건 언제나 위험을 동반하죠. 언제 나를 삼킬지 모르는 크레바스나 눈사태가 늘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방금까지 함께였던 동료들 잃을 때도 있죠. 함께 꿈을 꿨고, 산에 오를 이들의 뒷자리에 함께 하러 사진을 가슴에 품고 또 멈추지 않고 산에 오르는 거죠."

그는 산에 오를 때 가장 중요한 게 판단력이라고 했다. "정상을 바로 앞에 두고, 내려와야만 하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머리가 나쁜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웃음). 아무리 힘들었던 순간도 다 잊어버려요. 힘들었던 순간을 기억하기 보다는 더 어려운 곳이 어디일까 늘 생각했죠. 산에 오르면 그 다음 등반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전시장에는 베이스 캠프에 설치되는 티벳의 알록달록한 깃발 타르초가 전시돼 있으며 그가 등정할 때 입는 등산복과 텐트, 손가락을 잃은 그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한 다양한 등산장비, 등정 과정을 담은 영상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김 씨는 마지막 14좌 등반을 마무리하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트레킹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전시장에 걸린 티벳의 '타르초'



김홍빈이 등정 때 사용하는 등산복과 텐트

'행복한 삶을 위한 생애설계' 김남순 조선대 명예교수 강연

조선대학교 사범대 학장을 역임했던 김남순 조선대 명예교수가 '행복한 삶을 위한 생애설계'를 주제로 문화예술작은도서관에서 강연을 한다.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이 마련한 이

번 강좌는 빛고를 아트스페이스 2층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된다. 24일 '잠 만남과 창조성'이 이어 25·28·29일 강연이 펼쳐진다. 각각의 주제는 '소통하는 삶'

(25일), '봉사활동' (28일), '제2의 인생' (29일)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신청방법은 선착순 방문 접수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수강인원은 10명 내외다.

한편 교육학 박사이자 문화박사인 김남순 명예교수는 '허브뜨락에서의 힐링 원예' 등을 펴냈다. 문의 062-670-7968. /박성천 기자 skypark@

범현이 작가, 첫 소설집 '여섯 번째는 파란' 펴내

전시기획자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범현이 소설가가 첫 창작집 '여섯 번째는 파란' (문학들)을 펴냈다.

지난해 목포문학상을 수상했던 작가는 이번 창작집에서 가난하지만 예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을 그린다. 수록된 작품 대부분이 그림에 관한 이야기다. 그림을 그려야만 하는 타고난 작가의 이야기 '목포의 일우'를 비롯해 그림과 생계를 병행해야 하는 고통을 그린 '여섯 번째는 파란', 길게그림 작업을 하면서 포스터를 붙이는 정준을 그린 '가족가방'이 그들이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목포의 일우'는 남종 산수화의 대가 남농 허견의 이야기다. 소치와 미산을 잇는 가계에서 태어난 허견은 가난한 화가의 길을 가지 말라는 선친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결국 화업의 길로 들어선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고단한 현실과 28세의 나이에 시작된 골습(骨濕)은 그를 괴롭힌다. 그러나 그림에 대한 열정은 모든 약조건을 견디는 힘이 된다. 통증과 빈민 속에서 그는 그림의 신에게 다리 하나를 제물로 바쳐 마침내 신남화풍을 개척하기에 이른다.



처럼 남농의 예술혼은 모든 약조건을 뛰어넘는다.

표제작 '여섯 번째는 파란'의 화자 또한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인물이다. 그림에 뜻을 두지만 소질이 없다는 혹평을 듣고 글을 쓰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그때마다 화자는 관화가이자 타투리스트인 친구를 찾아가 위안을 얻는다.

한편 미술대학을 졸업한 범 작가는 전시서평과 전시기획을 하고 있으며 오월미술관을 운영 중이다. 2016년 지역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에세이 '글이된 그림들'을 발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문화예술위, '아트앤티크 밋업데이' 개최

4차산업시대 '예술과 기술 소통' 내일부터 3차례 온라인 강연

4차 산업혁명시대 향해를 위한 예술가들의 길라잡이를 모색하는 강연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과 기술의 소통'을 주제로 '아트앤티크 밋업데이(ART & TECH MEET-UP 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0년 아트앤티크 활성화 사업 연계 행사로 25일, 10월 14일, 11월 19일 3회에 걸쳐 전문가 강연을 진행하며 한양대 산업협력단과 함께 한다.

25일 열리는 1차 밋업데이는 초대형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 'WAVE'를 선보이며 이목을 끈 디스트릭트 이성호 대표가 '갤러리로 간 미디어아트- WAVE'에서 '아트페어뮤지엄'까지를 강연한다. 또한 9월 말 개관 예정인 몰입형 아트 전시관인 제주 '아트페어뮤지엄'을 온라인

투어로 공개할 예정이다. 10월 14일 2차 밋업데이는 키네틱 아티스트 정원석 작가가 '융복합 예술창작에서 예술인과 기술인의 협업-대화의 기술'을 주제로 기술 전문가와 예술가가 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해결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해인 작가가 연사로 참여하는 3차 밋업데이는 11월 19일 '인체를 인터페이스로 활용한 예술의 표현 방법'을 주제로 디지털작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초점을 맞췄다.

온라인 플랫폼 줌을 통해 생중계하며 회당 200명 신청자만 참여 가능하다. 접수는 온오프믹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아트앤티크 플랫폼(www.arko.or.kr/artntech)에서 확인 가능.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혜원 '홍보가' 발표회, 27일 성전국악전수관

최혜원(봉선중 2년·사진)양의 '홍보가' 발표회가 오는 27일 오후 5시 광주시 북구 청풍동 성전국악전수관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는 최 양의 세번째 발표회로 가야금 산조와 병창으로 2시간 동안 무대를 꾸민다.

1부에서 가야금의 짧은 산조와 긴 산조를 20여분 선율로 선보인다. 짧은 가락의 아쉬움과 긴 가락의 지루함을 달랠 수 있도록 산조의 눈대목과 자진모리, 휘모리의 긴가락을 엮어 들려준다.

2부에서는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을 다룬 판소리 '홍보가'에 가야금 연주와 창을 함께 선보이는 박귀희류 가야금 병창을 무대에 올린다. 후반부의 '박타는 대목, 홍보가 좋아라, 열씨루 절씨구'는 스승인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 병창 기능보유자인 문명자 선생이 편곡했다.

최 양과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될 고수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전수조교 박시양 씨며, 진행은 국악인 김서운이 맡는다.



다섯 살 때 판소리를 시작한 최 양은 초등학교 3학년 때 '홍보가' 발표회를 가졌으며, 지난해에는 '수궁가' 완창 발표회를 열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